

브릿지바이오, ‘BBT-877’ 임상 난항… “연구개발 지속”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글로벌 2상서 유효성 입증 못 해
추가 적응증 검토… 전략 재수립
BBT-301 등 후속 파이프라인 마련

혁신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BBT-877’ 임상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후속 파이프라인 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BBT-877’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BBT-877’ 글로벌 임상 2상 탑라인 데이터를 공개하며 일차 평가변수인 24주 차 강제 폐활량(FVC) 변화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임상은 한국, 미국, 호주, 폴란드, 이스라엘 등 5개 국에서 총 129명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129명 중 116명에서 BBT-877의 유효성,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24주 차의 강제 폐활량 변화가 약물군(57명)과 위약군(59명) 모두에서 관찰됐으나, 두 군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이사가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현장에서 기업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BBT-877은 특발성 폐섬유증 영역의 미충족 의료 수요로 인해 부작용이 낮으면서도 폐활량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신규 치료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아 왔다.

BBT-877은 앞서 지난 2019년에는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에 1조5000억원 규모로 기술 이전되기도 했다. 이후 개발 단계에서 잠재적 독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0년 기술 반환됐고, 202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이상 없음을 확인받아 임상 2상을 진행하게 됐다.

향후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이번 결과를 포함한 개별 환자들의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 전략을 재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BBT-877의 오토택신 저해제로서의 기전에 대한 부작용 프로파일은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적응증을 검토하고 있다.

BBT-877은 다양한 섬유화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오토택신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을 갖췄다. 오토택신은 인지질의 일종인 리소포스파티딜콜린(LPC)을 생리활성을 가지는 리소포스파티드산(LPA)으로 변환시키는데, LPA는 섬유화, 염증, 암 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를 비롯한 섬유증 환자에게 향상된 치료 효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BBT-301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군 중 하나로 경구제로 개발된다. 2023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시험계획 제출 전 사전미팅을 거쳐 추가 독성 시험 및 임상 1상이 면제됨에 따라 회

사는 글로벌 BBT-301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다.

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4세대 폐암 표적치료제 후보물질 ‘BBT-207’을 자체 개발해 임상 1/2상에 진입해 있다. BBT-207의 임상 1a상 용량 상승시험에서 투약용량을 단계적으로 증량해 나가며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탐색해 나가고 있다. 임상 1a상의 용량상승시험에서 최종적으로 두 가지의 권장 용량을 선별해 오는 하반기 임상 1b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후속 임상시험계획뿐 아니라 재무 측면에서도 연구개발은 지속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는 “올해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인 JP모건에서 발표도 했고, 다수의 글로벌 빅파마들과 구체적인 기술이전을 의논했지만 이번 결과로 즉각적인 기술이전은 쉽지 않게 됐다”며 “현재 200억원 수준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이는 아주 충분한 규모는 아니나 BBT-877, BBT-207, BBT-301 등 당면한 과제들은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46cm’ 브랜드 첫 공개

LG생활건강이 체취의 원인을 개선해 냄새 걱정을 덜어주는 체취관리 전문 브랜드 ‘46cm’를 처음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46cm’ 브랜드 제품은 냄새보다 후각에 더 빨리 도달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 체취 방어 효과를 갖춘 향료가 각종 냄새 걱정을 줄여준다.

특히 인체적용시험에서 샤워 후 24시간 경과 시 겨드랑이 냄새 개선율은 일반 바디워시 대비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은 ‘46cm 체취솔루션 약산성 데오드란트 바디워시’, ‘46cm 나이아신아마이드 톨온 데오드란트’, ‘46cm 체취솔루션 약산성 데오드란트 바디 미스트’ 등 제품군을 폭넓게 구축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롯데GRS-종근당건강 ‘엔제리너스’ 신메뉴 출시

롯데GRS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엔제리너스가 맛과 건강을 함께 즐기는 ‘헬스엔젤니스’ 소비 시장을 공략하고자 종근당건강과 협업을 통한 신메뉴 라인업을 16일 출시한다.

앞서 엔제리너스는 종근당건강과 신메뉴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근당건강의 ▲아임비타 멀티비타민 에너지샷, ▲락토핏 마시는 유산균, ▲다이어트코치 세 브랜드의 건강소재를 활용한 신 메뉴 5종을 개발했다.

롯데GRS 관계자는 “이번 신메뉴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 트렌드를 공략하기 위해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종근당건강과 협업을 통한 시그니처 라인업으로 일상 속 건강과 맛 모두 충족하는 로우스펙 메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동아제약 ‘조르단’ 스텝 시리즈 어린이 칫솔 판매 1위

동아제약은 ‘조르단’ 뉴스텝 어린이 칫솔이 국내 판매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0년 10월~2024년 12월 온·오프라인 판매처의 어린이 칫솔 부문에서 조르단 스텝 시리즈 칫솔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조르단 어린이 칫솔은 유아의 연령대별 구강 구조와 양치 습관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이다. 특히 스텝1, 2, 3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각각 0~2세용, 3~5세용, 6~9세용으로 구분된다.

/이청하 기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美 FDA ‘동물실험 폐지’ 수혜 기대

오가노이드 기반 ‘오디세이’ 구축
첨단 의약품·신소재 정확히 평가



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재생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다음달 코스타 상장을 앞둔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실험 폐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FDA는 지난 10일 단일클론항체 및 기타 약물에 대한 동물실험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의약품 개발 실험에 활용됐던 동물실험은 인공지능(AI) 기반 계산 모델과 실험실에서 만든 인체 장기 모사체(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테스트를 이용해 개선되거나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오가노이드 기반 신소재 평가솔루션 ‘오디세이(O-DISE)’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오디세이는 동물 실험 없이 인체의 특성을 모사하는 기능을 가진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첨단 의약품과 신소재를 정확히 평가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의 평가 솔루션을 제공한다.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통해 미세한 인체 환경을 구현하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반영할 수 있어, 기존 시험법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던 질병 치료제의 효능과 기전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

명이다.

또한 회사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함으로써 중앙 미세환경을 정교하게 구현해 면역항암제의 효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자회사 포도테라퓨틱스를 통해 항암제 감수성평가 솔루션을 사업화했고, 최근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역항암제 감수성 평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외에도 회사는 현재 ▲오디세이-ONC(종양) ▲오디세이-GUT(장) ▲오디세이-SKIN(피부) 등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제약·바이오 및 식품 기업 등과 총 50여 건 이상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6월 13~14일 개최될 글로벌 오가노이드 콘퍼

런스 ‘ODC’25를 통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정밀 의료와 맞춤형 치료제의 연구 성과 및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는 “동물실험의 폐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디세이를 기반으로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할 솔루션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며 “오디세이의 수요가 한층 많아지며 회사의 실적도 퀀텀 점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수요예측은 이달 16~22일에 진행되며, 일반투자자 청약은 이달 25~28일 진행된다. 5월 초 상장할 예정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을 주관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KGC인삼公, 美 ICSB 학술 세미나… 홍삼 효능·안전성 알려

〈국제천연물과학회〉

혈당 조절, 치매 예방 등 효과 확인

KGC인삼공사가 최근 미국 미시시피주 옥스포드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국립천연물연구원(NCNPR, National Center for Natural Products Research) 주관 국제천연물과학회(ICSB,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cience of Botanicals)에서 ‘홍삼 효능과 안전성’이라는 주제로 인삼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미국농무부(USDA),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등 정부관계자와 대학교수, 연구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삼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 한국의 연구자들이 홍삼의 심혈관 건강, 면역세포 항노화 등 대표적인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결과와 섭취 안전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홍삼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혈소판 응집 억제 등을 통한 혈액흐름 개선, 피로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갱년기 여성건강, 혈당조절 등 7가지 기능성을 공식 인정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홍삼이 항바이러스, 항암 및 항암 치료 시 피로도 개선, 혈당 조절,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개선 등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혈관 분야 전문가이자 미국 발리안스 클리니컬 리서치 소속의 아미르 라피(Amir Rafie) 박사의(의사)는 “홍삼 섭취가 혈소판 응집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안전하게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며 “한국 홍삼이 미국인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임이 확인되었다”고 미국 현지에서



미국 국제천연물과학회 아미르 라피 박사 발표 모습

/KGC인삼공사

진행한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KGC인삼공사는 이번 인삼 학술세미나에서 정관장 홍삼 제품 시음 행사를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